

순천시, 스카이큐브 화해 권고안 '고심'

대한상사중재원, 업체 운영·순천시 기부채납 후 운영 방안 제시 시민대책위 반대 속 다음달 20일까지 통보 앞두고 수용 여부 주목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의 스카이큐브 분장과 관련한 화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2월 중순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통보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스카이큐브의 분쟁 판정을 앞둔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23일까지로 정한 화해권고안 의견제시에 대해서 2월 말까지로 답변 기한 연기를 요청했다.

시는 설 명절 전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면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연기요청서를 발송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단 시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2월 20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권고안은 업체가 스카이큐브를 운영해 오는 방안과 순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 2가지이다.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적자 보상 방안과 세부적인 스카이큐브 운영 방안은 중재원 측이 비공개할 것을 요청해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순천시가 2가지 화해 권고안 중 하나를 수용하면, 에코트랜스 측에 수용 여부를

물어 갈등을 중재한다는 복안이다. 양측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직접 중재를 결정한다.

순천시는 스카이큐브 문제를 논의하려면 예산과 법리적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의회와 면밀하게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다만 순천시는 중재원이 제안한 권고안은 비밀 엄수 조항이 있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순천만소형경전철(PRT·Personal Rapid Transit)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권고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적자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에코트랜스에게 다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협의하라는 엉뚱한 권고를 제시했다"며 중재원의 권고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범시민대책위는 "무리한 사업과 정책추진으로 순천시민에게 깊은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순천만국가정원 소형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의 적자 문제를 두고 순천시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카이큐브 정원역.

며 "비현실적인 무리한 권고보다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에 우선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고 시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은 물론, 예산 문제, 행정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스카이큐브 운영을 시작한

에코트랜스는 만성적인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5년간 투자 비용 분담금 67억원과 미래에 발생할 보상 수익 1300억원 등 모두 1367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순천시도 스카이큐브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반대 신청을 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지역 대학생들이 정지선 지키기 등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안전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 순천' 만들기 총력

순천시, 다양한 업무계획 수립

순천시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 순천 완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시책의 업무 계획을 수립, 박차를 가한다.

지난 2018년 지역 최초로 국제안전도시 공인회와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시는 이듬 해 전남도 다산 안전대상을 수상하는 등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손꼽혀 오고 있다.

올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물론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순천안전문화대상 시상, 시민 안전보험 가입 등 신규 시책을 시행하고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 조성,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 국제안전도시 분과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붕괴 등 11개 항목의 시민 안전보험은 다음 달부터 최대 20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개인과 단체에게 시상하는 안전문화대상은 개인 100만원, 단체 300만원 까지 시상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원한다.

이 밖에 여성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선프드(범죄안전도시)를 확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신홍중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선프드를 시범 조성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 3년째를 맞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순천, 국제안전도시 공인, 폭염대비 클린로드 시범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5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아이디어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순천시, 2월 3~7일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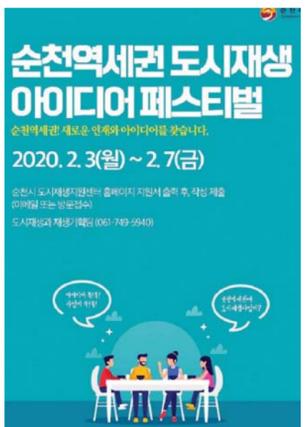
순천시는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참가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페스티벌은 아이디어 발굴과 육성, 실행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월 사전 설명회를 거쳐, 오픈 테이블(2~3월), 전문가와 아이디어 육성(4~5월), 최종 성과 발표회(5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페스티벌에 선정된 아이디어는 하반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제안팀이 직접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여 자격은 순천역세권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3명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은 지난해 5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5년간 340억원을 들여 거점 공간 조성, 생활 SOC 확충, 상권 활성화, 스마트 시티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웃장 상인 삶·초등생 꿈 담은 그림책 제작

순천시 그림책도서관에 전시하고 대출도

순천시 그림책도서관은 평범한 시장 상인들의 일상과 초등학생들의 꿈을 담은 그림책(사진)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림책도서관은 지난해 순천 웃장 상인 15명·성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시민 그림책 만들기'를 했다.

김종석 작가는 웃장 상인들과 함께 친숙한 가게와 상품을 소재로 재래시장의 특징이 잘 드러난 그림책 8권을 만들었다.

웃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떡집 할머니, 방앗간 사장님, 국밥집 아주머니 등 시장 상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겼다.

한성민 작가는 성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바위 삼형제·눈꽃 요정 등 상상에서 깎아낸 소재부터 학교 폭력·게임 등 현실적인 소재가 52권의 책으로 나왔다.

올해는 3학년 학생들이 만든 그림책 40권이 선보일 예정이다.

그림책도서관은 이번엔 나온 책을 도서관에서 전시하고 대출도 해주기로 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평생학습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2월 1~20일 접수

순천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평생학습 3F(Fun, Future, Feel), 순천에서 찾다'를 주제로 펼쳐진다.

'재미(Fun)'에서는 박람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할 아이디어를 선발하며 이어 '미래(Future)'는 박람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에 대해 누구나 꿈꾸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뽑는다.

이와 함께 '감동(Feel)'은 세대와 지역, 인종을 뛰어넘어 화합하는 평생학습의 장을 표현하고 실현 가능한 홍보전략

및 순천 관광자원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시는 최우수상 1팀에게 100만원, 우수상 1팀에게 50만원, 장려상 3팀에게 3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순천시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정보센터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순천시 공동 주최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